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복동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황출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사설 40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옥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경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필 통 55 바른말 고운말	1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재)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
12	40 채널A 뉴스보	00 KBS 뉴스 12		00 SBS 12 뉴스 45 2015 민영방송대상 우수상(힐링 일일랜드)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비타민	20 MBC 스포츠 2015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
2		0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재) 55 세계인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한국인의 밤상(재)	30 독?독! 키즈쿨
3	00 직인직설	00 KBS 다크 (역적어떤 2편)(재) 55 튼튼생활제초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보름달 공장 40 숲속마을 병풍농2(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뉴욕TV 페스티벌 수상작 (학교가는길 차다)(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공	25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MBC 이브닝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복숭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8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라동물극장(단편) 55 미녀와 야수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명경만리 (김영란의 제안 부패를 넘어 신뢰사회로) 55 스포터	00 수목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드라마 스페셜 (냄새를 보는 소녀)
11	0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00 KBS 뉴스라인 40 세계인 동양정신에 길을 묻다 제1편	10 해피 투게더	15 천생연분 리턴즈
12	40 내조의 여왕(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라 무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 리그 다이아리



최근 리메이크 앨범 '폴 인 메모리'(Fall in Memory)를 발매한 완도 출신 가수 거미가 22일 광주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열고 있다. 팬들과 직접 만난 거미는 이날 공연에서 타이틀곡 '해 줄 수 없는 일' 등 수록곡들을 들려줬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완도 출신 가수 거미 총장로서 버스킹 신곡 발표

(거리공연)

90년대 리메이크 앨범 '폴 인 메모리'

“다른 가수의 리메이크곡을 들어보면 뭔가 부담을 느낀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그런 부담을 지우고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1990년대 가수들의 곡을 리메이크한 앨범 '폴 인 메모리'(Fall in Memory)를 발표한 가수 거미(본명 박지연·34)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을 이끌어 설명했다.

그는 콘서트나 방송에서 선후배 가수들의 노래를 재해석해 선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식 앨범으로 묶어서 내기는 처음이다. 그는 신곡으로 채운 정규 앨범 대신 일종의 변곡점 같은 리메이크 앨범을 내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팬분들께 들려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박진영... 제가 그때 유행가라면 다 좋아했어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도 그렇고요. 저는 예전 추억을 떠올리고, 팬분들에게는 좋아하는 정통 발라드를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리메이크 작업을 선택했습니다.”

1990년대 노래 중에서도 오랜 고민 끝에 낙점한 곡은 ‘너를 사랑해’(한동준)와 ‘해줄 수 없는 일’(박효신), ‘헤어질 다음 날’(이현우), ‘로미오&줄리엣’(신승훈), ‘준비없는 이별’(녹색지대) 다섯 곡이다.

거미는 일부러 남자 가수의 곡만 선택했다고 밝혔다. 리메이크에 대한 부담을 덜려면 아예 목소리 색깔이 다른 남자 가수의 곡이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거미는 “다른 가수의 리메이크곡을 들어보니 다들 부담스러워하던 것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부터 제가 리메이크 한다면 편안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편안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아예 목소리만으로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남자 가수의 곡만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목소리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기존 가수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 있는 곡을 다시 만들거란 쉽지 않았다.

거미는 감성 표현으로 원곡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동준이 부르는 ‘너를 사랑해’는 남자가 여자의 어깨 감싸 안은 채 하는 말 같다면 자신이 부르는 ‘너를 사랑해’는 마치 속삭이면서 건네는 대화처럼 들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타이틀곡인 ‘해줄 수 없는 일’은 진정성을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헤어질 다음 날”처럼 일부는 편곡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더하려고 했다.

그는 “애초 원곡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대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자고 결심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부담을 덜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미는 리메이크 앨범에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에는 블루스 느낌이나 훨씬 더 이전 시대 곡들을 해보고 싶어요. ‘넌 먼 곳에’처럼요.”

그는 앨범 작업에 남자친구(배우 조정석)의 도움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연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남자친구도 음악을 좋아한다. 작업 중간중간 팬 입장으로 조언을 많이 해줬다. 특히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거미는 “얼마 전부터 팬들과 직접 만나 제 음악을 들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렇게 대중과 교감할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15 정글북 2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리자어요	14:30 마틸다사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키 탐험대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
07:15 책과 평화(재)	11:20 세계대마법사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둥덩 유치원(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16:20 원더블스
08:00 덩둥덩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16:30 우당탕탕 아이쿠
08:20 로보카 폴리(재)	13:05 역사채널e	16:45 책과 땅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10 육아를 부탁해(재)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08:50 코코몽 3	13:40 사이먼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09:05 원더블스(재)	13:50 따개비 루	17:30 두다다공
09: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4:00 마야의 모험	17:45 로보카 폴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II-읽기재검>	12:10 올림포스 <국어II-읽기재검>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점왕 <과학 3-1>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7:30 행정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과학 4-1>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A>	08: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과학 5-1>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50 " <과학 6-1>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진과목 6-1>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국어⑤⑥>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09:50 " <영어1>	18:40 " <영어3>
05:00 뉴탐스런 <화학I>	17:20 " <기하와 벡터>	10:30 " <도덕2>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06:00 " <지구과학I>	18:10 뉴탐스런 <화학I>	11:10 " <국어③④>	20:00 EBS 인문학 특강
06:40 " <세계지리>	19:20 " <지구과학I>	11:50 " <영어2>	20:50 EBS 기획시리즈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2:30 EBS 특강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8:20 2016 수능개념(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13:10 중학 중·기시험 대비문제풀이	22:00 중학 중·기 시험 대비 문제풀이
09:10 " <이은주의 수학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역사 2-1〉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B>	21:50 " <문학 B형〉	13:50 " <사회1-1>	22:40 " <과학3-1>
11:00 " <수학Ib>	22:30 박범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14:30 " <역사1-1>	23:20 필독 <사회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음 3월 5일 己巳)

子	48년생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마당이다. 60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72년생 전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유용하다. 84년생 차원을 달리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좋다. 행운의 숫자 : 86, 24	午	42년생 바탕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54년생 한순간에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평상시에 생활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 66년생 보고만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78년생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45, 73
丑	49년생 간접적인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61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사실대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맞다. 85년생 마음을 비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5, 64	未	43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된다. 55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보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67년생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평면만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된다. 79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할 요망된다. 행운의 숫자 : 79, 08
寅	38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겠나. 50년생 일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62년생 희망적이나. 74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86년생 실황을 종합하면서 계획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3, 50	申	44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56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68년생 애초에 마음 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80년생 뜻하는 바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행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31
卯	39년생 무리는 없을 것이다. 51년생 확산해 된다. 63년생 가닥이 잡히면 즉시 속도를 내는 것이 지혜롭다. 75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나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87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행운의 숫자 : 36, 22	酉	45년생 재물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57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69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81년생 자신과는 하등의 상관없이 일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9, 97
辰	40년생 심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 뻔하니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자. 52년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양태이다. 64년생 분담해서 이행하면 훨씬 쉽다. 76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1, 65	戌	46년생 이해관계 하에서 혼란스러워 하리라. 58년생 제의를 받거나 첫 관련을 맺을 수다. 70년생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미루지 말라. 82년생 감당하지 못 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57, 90
巳	41년생 목전에서 당황한다면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된다. 53년생 장래를 안정시키는 다짐들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65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될 것이니라. 77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할 요망되는 시점이나. 행운의 숫자 : 61, 06	亥	47년생 기쁨이 조짐 되면서 여러 가지가 처리 되는 형국이다. 59년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71년생 계획대로 임해야 할 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83년생 외형과 내면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행운의 숫자 : 84, 9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김고은

“악착같이 사는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죠”

영화 '차이나 타운' 내면 연기 도전 김고은

“활영 도중에 감독님께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이 왜 이렇게까지 사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다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라는 감독님의 대답이 제게 딱 쏘였죠.”

“차이나타운”에서 여주인공 일영 역을 연기한 여배우 김고은(24)은 21일 서울 종로구 필판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영화는 지하철 10번 보관함에 버려진 한 아이가 인간을 쓸모없음과 없음으로 분류하는 비정한 세상인 ‘차이나타운’에 들어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일영은 차이나타운에서 대모로 군림하는 ‘엄마’(김혜수)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식구’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아간다.

이들은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하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행사하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극 중 엄마 식구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도 집은 형편 없고, 옷도 안 사입고, 밥은 만날 중국 음식을 먹어요. 무엇을 위해 사람들까지 죽여가며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듯이 그들의 방식일 뿐인 거지, 우리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차이나타운은 어두운 영화지만, 내내 밝고 화기에 애하게 찍었다”며 “김혜수 선배가 힘을 북돋아주시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은교’(2012), ‘몬스터’(2014)에 이어 3번째 영화이자 이번에도 연기 변신을 시도한 김고은이 이번 배역에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일까.

“영화에 나오는 장소와 환경에 낯설고 어색하지 않은 연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자기표현이 적고 대사로 많지 않은 배역이라 매 장면 감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죠.”

김고은이 지금까지 출연했던 영화는 모두 평범하지 않은, 하나같이 인간의 깊숙하고 어두운 내면을 조명하고 있다.

“가벼운 내용의 영화도 시나리오가 재밌으면 하고 싶어요. 그러나 현재 한국영화는 가벼운 소재를 다룬 영화가 많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장르적인 특색이 많은 영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은교, 복선, 일영 등 김고은이 맡는 배역마다 맞춤형에 어울린 건 연기에 앞서 그의 깨끗하고 맑은 얼굴 덕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형수술 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적도 있다.

“제 얼굴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평범함이 가진 다양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모든 것은 이 평범함 속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24살의 풋다운 나이답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다. 김고은의 이상형은 자기처럼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란단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의 정의도 아직 못 내린 상황이지만요. 정의를 내렸다가도, 다시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죠.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적어도 연기가 잘한다고 좋은 배우는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연합뉴스